

시론



柳錫春

연세대 교수·사회학

1970년대 남미의 정치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개념은 '포퓰리즘'이다.

70년대 南美상황과 비슷

포퓰리즘은 빛더미에 올라앉은 당시 남미의 경제를 살려보려는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지주와 농민은 물론 근대적 산업부분의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국제화된 부문의 도시상인과 화이트칼라 집단 등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민족주의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묶어 대외종속을 벗어나 보고자 했던 시도를 총칭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국민적 동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미의 포퓰리즘을 우리는 그때그때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사탕발림의 정치'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은 이

치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다양한 집단의 갈등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사회의 각 집단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리이러한 것은 수용이 가능하고 저러저러한 것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치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기준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에게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약사에게는 약사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

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때는 특검제의 도입을 그렇게도 주장하더니, 정작 여당이 되고 나서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

선거 때만 되면 자민련을 공동정권의 한 축이라고 선전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민련은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초라하게 전락한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정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져 있어도,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강변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가 진행되는 모습은 70년대 남미를 풍미했던 '포퓰리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인기 영합하는 의사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정당화하는 우중(愚衆)정치도 횡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할 지식인과 학생·시민운동 단체들은 과거와 같은 치열한 비판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기에만 영합한 의사결정이 김대중 정권이 마무리된 다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의 남미화가 진행된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인기영합 정치의 끝

해관계는 물론 이념적인 지향에 있어서도 항상 갈등하고 있다. 어떤 집단은 경제적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균형 있는 분배를 중시한다. 또 다른 집단은 민족의 화해가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환경을 중시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집단도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의 등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하는 정치과정이다. 민주주의에서 정

다는 약속을 남발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킨 일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대북사업을 할 때는 현대그룹의 계열사 확장을 눈감아 주다가, 재벌 개혁을 하면서부터는 현대그룹이 부실하다고 몰아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벤처를 육성한다고 하고는, 정작 핵심사업인 IMT-2000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의사결정이 지배적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축소한다고 약속하더니, 이의 실행에 필요한 작업은 착수